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첼로 지도 연구

- 스즈키 첼로교본 제 1권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 장 홍 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한 혜 정

2005년 8월

초등학교 특기 · 적성의 첼로 지도연구

- 스즈키첼로교본 제1권 중심으로 -

지도교수 장 홍 용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한 혜 정

한혜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5년 8월 일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초등학교 특기·적성의 첼로 지도연구

- 스즈키 첼로교본 제1권 중심으로 -

한 혜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장 홍 용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분야를 보든지 현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변화과정에서 문화 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히 높아졌으며 음악에 대한 욕구도 예외일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음악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인교육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즐기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참다운 음악교육이 외면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실행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제도를 잘 이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악을 통한 음악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첼로지도에 있어서 기초교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즈키 첼로 교본》중에서 제1권을 중심으로 그의 교육 방법에 근거하여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지도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문헌을 통해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의의와 근거를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살펴보고, 첼로 특기·적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특기·적성 교육의 개념, 필요성 기본 방향을 살펴보고, 오늘날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 있어서의 기악반 활동상태와 기악반에서의 첼로 특기·적성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스즈키 첼로 교본》의 저자이며 재능교육으로 유명한 신이찌 스즈키(Shinichi Suzuki)의 생애와 교육철학과 그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의 교육철학은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사상위에 인간의 능력은 후천적 교육과 환경에 따라 무한히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모국어 학습교육의 원리를 악기교육에 적용하여 재능교육을 전개해나갔다.

이러한 재능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이른 시기에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반복을 되풀이한다.

셋째, 교육적이고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넷째, 훌륭한 교육방법으로 가르친다.

다섯째, 뛰어난 지도자에게 배운다.

그리고 스즈키 지도 원리로는 빈곤의 원리, 음악적 감각의 육성을 위한 듣기 훈련, 암기식 교수법과 독보의 지도, 부모의 조력, 그룹레슨, 아름다운소리내기((Tonalization)등이 있다. 특기·적성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에 약간의 한계점도 있으나, 그룹레슨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적인 지도를 위해서 스즈키 첼로 교본 제 1권을 분석하고 그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그리고 효율적인 초등학교 첼로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즈키 첼로 교본을 활용한다.

둘째, 그룹레슨을 활용한다.

셋째, 앙상블 연주를 한다.

넷째, 연주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를 마치며 앞으로도 첼로를 활용한 특기·적성 교육이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첼로뿐 아니라 다른 악기들을 통한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져 초등학교 학생 어린시기에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경험함으로써 창조적인 사고와 소리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신장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본 론	4
1. 특기·적성 교육	4
1) 특기·적성 교육의 개념	4
2) 특기·적성 교육의 필요성	5
3) 특기·적성 교육의 활동의 기본방향	6
4) 특기·적성 교육에 있어서의 기악반의 활동 상황	7
2. 스즈키 교육 방법	10
1) 스즈키의 생애와 교육 철학	10
2) 모국어식 학습방법과 재능교육	12
3) 스즈키 교육의 지도원리	14
3. 실제적 지도 방안연구	20
1) 스즈키 첼로교본 제1권 분석 및 지도방법	20
2) 효율적인 특기·적성교육 지도방안	39
IV. 결 론	60
참 고 문 헌	62
Abstract	64

그림 목 차

그림1. 작은별 변주곡의 운지법	23
그림2. 프랑스 민요의 운지법	26
그림3. 나비야의 운지법	27
그림4. 예쁜새의 운지법	28
그림5. 무궁동 사장조의 운지법	33
그림6. 그 옛날에의 운지법	34
그림7. 노래는 즐겁다와 즐거운 아침의 운지법	35
그림8. 리고동의 운지법	36
그림9. 에튀드의 운지법	37
그림10. 즐거운 농부의 운지법	37
그림11. 미뉴에트 다장조의 운지법	37
그림12. 미뉴에트 No.2의 운지법	39
그림13. 스즈키 제1권에서 나온 포지션	39
그림14. 첼로와 활의 구조와 명칭	40
그림15. 첼로의 앉은 자세	42
그림16. 활 잡은 모양	43
그림17. 왼쪽 팔 자세	48
그림18. 손가락 세운모양과 펼친 모양	49

악보목차

악보1. D현을 사용한 바른 자세의 연습	21
악보2. D현에서 A현으로 옮기는 연습	21
악보3. 제1포지션의 라장조 음계	22
악보4. 작은별 변주곡	23
악보5. 프랑스 민요	26
악보6. 나비야	27
악보7. 예쁜 새	28
악보8. 주먹 쥐고 손뼉치고	29
악보9. 크리스마스의 노래	30
악보10. 토널리제이션	30
악보11. 봄바람	31
악보12. 알레그로	32
악보13. 토널리제이션	33
악보14. 노래는 즐겁다	34
악보15. 미뉴에트 No.2	38
악보16. 개방현 악보	45
악보17. 온음표 연습	46
악보18. 2분음표 연습	46
악보19. 4분음표 연습	47
악보20. 손목연습	47

악보21. 2번선(D현)연습곡	50
악보22. 1번선(A현)연습곡	50
악보23. 3번선(G현)연습곡	51
악보24. 4번선(C현)연습곡	51
악보25. 다장조 음계 - 온음표	52
악보26. 다장조 음계 - 2분음표	52
악보27. 다장조 음계 - 4분음표	53
악보28. 작은 별 변주곡(양상블)	55
악보29. 나비야(양상블)	56
악보30. 예쁜 새(양상블)	56
악보31. 주먹쥐고 손뼉치고(양상블)	57
악보32. 크리스마스 노래(양상블)	57
악보33. 봄 바람(양상블)	58
악보34. 알레그로(양상블)	5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분야를 보든지 현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변화과정에서 문화 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히 높아졌으며 음악에 대한 욕구도 예외일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음악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인교육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즐기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참다운 음악교육이 외면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실행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제도를 잘 이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악을 통한 음악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기·적성 교육에서의 음악 활동은 합창, 합주, 전통 음악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음악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악기들을 접해 보는 음악 체험을 하게 되어 그들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초등 음악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특정 악기 또는 모든 악기들을 시도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욕구인 것이다. 노래에 맞추어 손뼉을 치거나 여러 가지 기물을 두들기는 것도 그와 같은 본능의 발로인 것이다. 기악 학습은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의 균형 있는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선천적인 성대의 질환이나 기타 가창을 기피하는 학생에게 음악 애호의 시정을 심어주는 절호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과 타 교과 학습에서 열등의식을 가지는 학생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정규 수업시간에 흥미를 상실한 학생에게 특기·적성 교육 활동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다루어 보는 기회를 갖고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고 집단 연주활동을 통하여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한다.²⁾

음악교육에서 조기 음악교육은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조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한 음악교육자 중의 한 사람인 신이찌 스즈키(Shinichi Suzuki)는 후천적인 교육과 환경에 의해 인간의 잠재된 능력은 무한히 개발될 수 있다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악기를 이용하여 재능교육(Talent Education)을 실천하였다.³⁾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첼로지도에 있어서 기초교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즈키 첼로 교본》중에서 제1권을 중심으로 그의 교육 방법에 근거하여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지도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문헌을 통해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의의와 근거를 살펴보고, 첼로 특기·적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본 논문에서 제시한 특기·적성교육의 효율적 지도 방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교육부, 제 7차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p.28

3) 오승민, 「스즈키 교육에 의거한 첼로교본 제1권의 분석과 지도 방안 연구」.(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1999), p.1

- 2) 스즈키 교육방법은 바이올린, 플루트, 피아노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첼로 지도법을 중심으로 한다.
- 3) 스즈키 첼로 교본 중에서 제1권을 분석하고 지도방안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4) 초등학교 첼로 특기·적성교육 현실에 맞도록 교재를 적절히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을 다루고 있다.

- 1) 특기·적성 교육의 개념, 필요성 기본 방향을 살펴보고 오늘날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에 있어서 기악반의 활동상태와 기악반에서 첼로 특기·적성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2) 스즈키의 생애와 교육철학, 스즈키 교육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 3) 효율적인 첼로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실제 지도방안을 스즈키 첼로 교본 제 1권을 중심으로 구상해 보았다.



II. 본 론

1. 특기 · 적성 교육

1) 특기 · 적성 교육의 개념

특기 · 적성교육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학습 외에 특별히 행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활동은 구체적인 개념정리의 교과학습과는 달리 학생들의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건전한 취미활동이나 특기, 또는 기능 육성 및 민주적 생활 태도를 그리기 위해 행해지는 학교의 교육활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기 · 적성교육활동의 근원을 특별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용어는 종래 ‘과외활동’이라고 불리어오던 학생활동에 대한 호칭으로서 8.15 광복 후 처음 제정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생활영역과정으로 붙여진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특별활동을 ‘학생들의 과외활동’으로 규정하던 정의는 그리 오래 사용되지 않았다.⁴⁾

1996년 5월31일 교육개혁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방과 후 교육활동은 1999년 2월 4일 교육부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이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계발하고 특기를 신장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 특기 · 적성 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특기 · 적성 교육 활동’이란 기존의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다루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다. 즉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능력, 요구에 맞는 기능 활동, 학예 활동, 체육 및 교과활동, 애향단 활동이나 스카우트 및 아람단 활동 같은 관심과 흥미에 따른 봉사활동, 취미나 오락 활동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

4) 백갑점, 「초등학교 특기 적성 · 교육활동에 관한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pp.8~10

주고 수요자 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확보해 주는 교육활동이다. 즉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개념은 아동의 능력과 소질개발 및 개성신장, 건전한 취미와 특기를 길러,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2) 특기·적성 교육의 필요성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하는 교육 활동에 있어서 특기·적성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활동이 교육에 기여하는 점은 매우 다양하다.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개성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한다. 교육이란, 인간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발달과 사고 및 행동 양식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이상적인 상태로 성장, 발달시키기 위한 적용을 의미한다. 인간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끊임없이 변화라고 발전해 나간다. 그러나 개개인의 개성이 다르며 학습의 요구수준도 다르므로 개개인의 욕구 필요능력에 따라 학습의 정도나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개성 신장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위주의 획일적 교육으로 교과학습에 부진한 학생들은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고 개성 신장의 기회마저 잃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특기·적성 교육의 시간이다. 특기·적성 교육은 교과활동과는 달리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원만한 사회성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사회는 인간 개인에 대한 존중,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서 각 개인이 실천하는 사회, 개인의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이다. 학생들은 아직 미 성숙된 인간이므로 교원이나 성인들에 의한 절대적인 권력행사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육은 창조능력, 협동적 태도, 사회적인 감수성 반성적 태도 및 관용정신 등 민주적 가치를 습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 교육은 지식위주의 암기 학습 속에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연령, 취미, 관심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서 같은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특기·적성 교육을 통하여 민주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있다.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안 자신의 책임과 의무 등 민주시민의 자질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전인적 인격 형성에 공헌한다. 교육은 심신발달의 조화를 이룬 전인으로서의 인격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학생들은 지, 덕, 체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적인 면을 보면 교과 지식 중심의 과도한 학습량, 감성이나 지각보다는 기억에 의한 학습 등으로 사고력과 창조력 등이 결핍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도 인성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인내력 부족, 이기적이며 무책임한 행동, 과잉보호로 인한 독립성 부족 등이 그것이다. 이런 지적, 성격적, 신체적인 면에서의 결함을 보충하는데 있어서 특기·적성 교육은 기회와 활동의 장을 제공한다. 개성을 지닌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촉진하고 풍부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⁵⁾

3)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기본 방향

특기·적성 교육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에 비추어 몇 가지 방향을 서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기·적성 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포함한 자아 특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계발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둘째, 특기·적성 교육은 교과의 심화과정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각 교과에 적성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교과활동을 기초로 발견되고, 이들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활동이 연결되어야 한다.

셋째, 특기·적성 교육은 예체능 분야의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키워주는 기능

5) 교육부, 「특기·적성 교사용 지도서」(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8), pp.3~6

을 담당해야 한다.

넷째, 특기 · 적성 교육은 다양한 직업분야의 특기와 자격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특기 · 적성 교육은 교육과정에 근거한 정규 교육활동으로 되어야 한다.⁶⁾

이러한 방향으로 특기 · 적성 교육이 자리 잡아 간다면 학생들의 정서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발달과 자아실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4) 특기 · 적성 교육에 있어서 기악반의 활동 상황

(1) 기악 교육의 중요성

기악은 가창과 함께 음악적인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며, 적절한 기악 체험은 음악적 자신감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음악적 자아실현을 가능케 한다. 또한 기악은 음악과 학습지도 과정 전체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준다. 가창이나 합창에서 반주의 역할은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직접적인 악기연주 활동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창조적 욕구를 자극하여 음악적 즉흥성과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악기의 발음 조작 과정에서 갖게 되는 학습자의 흥미는 그대로 기악에 대한 강한 동기유발로 이어지며, 가창 표현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음악적 자신감과 만족을 경험하게 해 준다.⁷⁾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욕구이다. 따라서 노래에 맞추어 손뼉을 치거나 기물을 두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할 수 있겠다.⁸⁾ 이와 같이 인간 본래의 욕구인

6) 장석민 “ 특기 · 적성 교육의 기본 개념과 방향”, 「서울교육」, 제 44권 제3호 통권 168, (서울 : 서울특별시 교육과학 연구원 2002 가을호), pp. 22~23

7) 이용일, 「음악교육해설」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1993), p. 192~192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음악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악 교육의 중요성은 기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악기 연주하는 변화 있고 다양한 음악표현의 세계를 접할 수 있으며 자기표현의 한 방법으로 기악은 음색의 다양성, 넓은 음역, 표현의 다양성, 기교의 다양성 등 큰 표현력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가진 신체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세계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기악 학습은 시각이나 청각뿐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과 함께 한다.⁹⁾ 또한 악기 연주는 학생들이 악기로 자신을 표현하며 음악을 체험함으로써 연주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므로 학교 음악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기악은 가창과 함께 음악 표현의 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리듬감을 기른다.

둘째, 가락의 흐름을 느껴 음악적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셋째, 프레이즈감을 기른다.

넷째, 화음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다섯째, 음정감을 기른다.

여섯째, 창조성을 기른다.

일곱째, 사회성(협동)을 기른다.

여덟째, 물건(악기)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를 기른다¹⁰⁾

이처럼 기악 교육은 학생들에게 악기 연주를 통하여 창조적인 욕구와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며 다른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성을 배우며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아간다.

8) 유덕희, 「예능교육」(서울 :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8). p. 268~269

9) 이성삼, 「음악 교수법」(서울 : 세광 출판사, 1987). p. 177

10) 새교실 8월호 「기악합주」(대한교육 연합회, 1989) p.9

(2) 기악반의 활동 상황

특기 · 적성 교육에서의 기악반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들로 편성되어 있다.

크게 둘로 나누면 서양악기와 국악기로 나뉘며 서양 악기로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리코더 등이 기악반에 편성 되어있는데,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악기를 신청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악기 가격이 저렴하고 많이 대중적인 바이올린, 플루트, 리코더를 많이 선호하고 있지만 요즘은 첼로나 클라리넷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기 · 적성 교육에서 기악반의 지도는 1대1레슨과 그룹레슨, 합주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같이 학생수가 많은 반에서는 거의 그룹 레슨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악반이 가지는 중요한 특색은 합주 활동이다. 합주반의 활동으로는 교내 행사인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등의 행사와 대회 행사의 각종 경연대회, 예술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합주반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첫째,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보다 많은 음악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둘째, 단체 활동을 통해 자주성과 협동심을 배양하고 인간관계를 깊게 한다.

셋째, 합주단의 연주는 학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넷째, 합주반의 활동은 건전한 취미 여가활동으로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돕고 음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조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데 가치를 둔다.¹¹⁾

이러한 기악반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각이 높아지고 여러 학우들과의 생활을 통해 또 다른 사회성을 배워 나간다.

11) 김동규, 「초등학교 관악 합주단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광주 대학교 교육 대학원, 2001) .p11~12

(3) 기악반에서의 첼로 특기 · 적성 교육의 특징

스즈키는 아동이 말을 배우듯이 음악적 재능도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며, 이러한 재능교육의 목표는 아동을 후천적으로 뛰어난 천재로 키우기보다는 조기 교육을 통하여 아동 안에 있는 잠재능력을 육성하는 것이라 한다.¹²⁾

이처럼 유년기에 음악적 체험과 또래 동료들과의 유대관계로 협동정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배움을 촉진시키고 학습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

기악반에서의 첼로 특기·적성 교육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첼로는 음폭이 넓어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악기이다. 반주악기이면서 독주악기이므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연주 할 수 있다.

둘째, 첼로는 음량이 풍부하고 화음 연주와 앙상블 연주를 통해 화성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첼로의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저음으로 거부감이 없으며 부드러운 예민한 학생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정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넷째, 특기 · 적성 교육에서 첼로는 집에서 하는 개인레슨이 아니라 또래 학우들과 어울려 하는 학습이므로 다양한 음악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2. 스즈키 교육 방법

1) 스즈키의 생애와 교육철학

신이찌 스즈키(Shinich Suzuki : 1898. 10.17 - 1998. 1. 20)는 일본 나고야에서 아버지 마사키찌(Masakichi Suzuki)와 어머니 후지(Ryo Fujie) 슬하의 7남

12) 이지연 「어린이의 음악적 감각발달 단계에 따른 바이올린 교육 - 스즈키방법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998), p. 4

5녀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Suzuki Violin 공장을 경영하였다. 부친은 기계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에 의해 특허를 21개 소유한 사람이었다. 스즈키는 어려서부터 이런 아버지의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과 열의에서 많은 감명을 받으며 자라났다. 사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심뿐만 아니라 성실이라는 것을 실지로 교훈으로 받은 것이다.¹³⁾

1915년 상업학교 재학시절 바이올린 주자인 엘먼(Mischa Elman)이 켜는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를 듣고 난 후 바이올린 소리에 매료되어 바이올린을 배우기로 결심하였다. 22세가 되던 1920년 10월 27일 그는 독일의 베를린으로 건너가 8년 동안 칼 클링거(Karl Klinger)에게 배웠으며 1928년 독일인의 발트라우트(Waltraud Drange)와 결혼하였다.

1929년 일본으로 귀국한 후 여러 대학에서 교수, 학장등을 역임하였고 그 후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일본의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방법을 생각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악기 한 대로 열집을 돌아가며 연습을 시키거나 저렴한 교육비나 부모 참여수업을 실시하는 등 스즈키 자신만의 새로운 교육방법을 넓혀갔고 또한 유아교육동맹을 구성하여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스즈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훌륭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누구든지 좋은 교육방법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발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¹⁴⁾

또한 개인의 능력은 환경에 의해 무한히 개발 되어 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어린이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원리 위에 한 삶의 낙오자도 없이 훌륭한 인간으로 키우고자하는 신념에 핵심을 두고 교육하였다.

1950년대에 일본 전역 50개의 도시에 재능교육연구에 지부(支部)가 결성되고 1959년에는 미국에 소개되어 세계적인 보급의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에는 유럽 여러 나라에 소개되고 아시아 지역에도 한국, 대만, 인도

13) 김양희, 「SUZUKI 이론에 근거한 첼로 교수법 연구」(석사학위 논문, 연세 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1999), p. 2

14) C. R 호퍼(1983)저, 안미자 역 음악교육론, 서울 :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1984, p.170

등지에 재능교육 지부를 두게 되었다. 현재 일본은 물론 북미(北美)에서 가장 활발하게 스즈키의 교육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그리고 플루트와 다른 과목에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스즈키의 교육은 연주회와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재능교육(才能教育, Talent Education)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음악교육방법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스즈키의 재능 교육은 전문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며 일상생활에서 모국어처럼 익히는 것처럼 음악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어린이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개발 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¹⁵⁾

2) 모국어식 학습방법과 재능교육

스즈키가 독일에서 유학중에 겪게 된 어려움은 바이올린 연주가 아닌 독일어였다. 그것은 모든 독일의 어린이가 3세의 나이에 독일어를 이해하며 유창하게 말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했다. 스즈키는 이는 이와 같은 모국어식 학습방법을 연구하여 스즈키 방법론(Suzuki Method)으로 명하였으며, 귀국 후 모국어식 학습법에 의한 재능교육을 확립해 나갔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첫째, 말(언어)은 인간 누구나 구사할 수 있는 것이며 자극과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얻어지는 능력의 일종이다.

둘째, 인간은 육성방법만 좋으면 어느 면에서나 훌륭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인간은 말에 나타난 재능만큼 다른 면에서도 재능을 개발할 수 있다.

이처럼 스즈키는 어린이가 말을 배우듯이 음악적 재능도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며 이러한 재능교육의 목표는 어린이를 후천적으로

15) 황경익, Suzuki Method에 관한 연구(바이올린을 통한 재능교육), 대전 : 한국 스즈키 음악협회, 1997. p. 6

뛰어난 천재로 키우기보다는 조기교육을 통하여 어린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육성하는 것이라 한다.¹⁶⁾

또한 그는 자신의 자녀에게 한 가지를 택하여 재능교육의 원리에 의해 뛰어난 능력으로 육성 될 때까지 키우도록 권하고 있다. 다시 말해 높고 훌륭한 권위자가 되도록 한 분야만을 집중해서 교육한다는 것을 두뇌활동을 최대한으로 활용시켜 다른 일들까지도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스즈키는 어린이에게 이러한 재능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하였다.

첫째, 보다 이른 시기에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반복을 되풀이하는 학습법을 선택하여 어린이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증진시킨다.

셋째, 교육적이고 유익한 환경 즉 어린이가 모국어를 배울 때와 같은 환경을 조성해 준다.

넷째, 훌륭한 교육방법을 어린이에게 적용시킨다.

다섯째, 뛰어난 지도자에게 배운다.

그는 재능교육의 언어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3-4세의 유아기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이것은 음악적 재능을 언어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교육하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¹⁷⁾

스즈키는 반복을 중요시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모국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자극과 훈련의 되풀이 즉 반복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습한 곡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1의 곡을 잘 연주하게 되었으면 새로운 2곡을 같이 연습시키고 1+2와 같은 식으로 동시에 두곡을 동시에 학습시키면서 결국은 1, 2 모두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에는 3의 곡을 추가하여 강조하며 1의 곡을 연습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 다음은 2+3의 같은

16) 이지연 「어린이의 음악적 감각발달 단계에 따른 바이올린 교육 - 스즈키방법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998) p. 4

17) 황경익 전계서, pp. 9~10

식으로 곡을 늘려가면서 능력을 높여가게 한다. 또한 그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 자체가 음악적 능력을 육성하는 요건이 되므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환경 즉, 음악적 환경을 어린이에게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3) 스즈키 교육의 지도원리

스즈키는 어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국어를 구사하는 부모와 모국어라는 주위 환경에 둘러싸여서 어린이는 외국어를 모방 대상으로 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국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듯이 어린이에게 언어 습득과정과 같은 음악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반복훈련을 거듭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스즈키가 말하는 재능교육에 있어서 환경요인과 학습자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환경요인으로는 청음훈련, 암기식 교육, 부모(어머니)의 조력이며, 학습자 요인으로는 빈곤의 원리이다.

(1) 빈곤(貧困)의 원리

스즈키는 악기를 처음 배우러 오는 어린이를 곧바로 지도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자신의 지도이념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다. 그런 다음 스즈키 교본 제1권의 첫 곡에 해당하는 작은 별 변주곡을 어머니가 켤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이 때 어머니가 사용하는 악기는 어린이의 작은 악기로 배우게 된다. 이 때까지 어린이에게는 악기를 켜게 하지 않고 작은 별 변주곡의 레코드를 매일 들려준다. 어린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가 어린이의 작은 악기로 연습하는 것을 본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흥미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 스스로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일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켜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 까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한다. 이렇게 하여 공부하려는 의욕이 생겼을 때 비로소 재능 교육을 위한 준비태세가 이루어진다.¹⁸⁾

(2) 음악적 감각(感覺)의 육성을 위한 듣기 훈련

그는 어린이의 음악적 감각의 육성을 위해서 듣는 것을 중요시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에게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듣는 힘이 생기고 음악적 감각이 발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스키는 이때 레코드를 적게 들은 어린이는 음악적인 감각이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그는 어린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음악을 들려주도록 하고 부모는 어린이가 배우게 될 곡을 매일 레코드를 통해 들려주도록 한다. 이것은 ‘곡을 빨리 익히게 하고 음악적 재능을 발달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방법이다’ 라고 한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스키 지도방법이 레코드 모방에 의존한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음악교육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학습도 모방의 과정을 거쳐서 학습자 자신의 지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듣기훈련에 의한 모방을 음악적 감각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다.²⁰⁾

(3) 암기(暗記)식 교수법과 독보(獨步)의 지도

스키는 어린이가 스키 교육방법으로 학습할 경우, 어린이가 학습한 모든 곡은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어린이의 암기력이 훈련에 따라서 점차 속도가 빨라진다.

18) 오승민 전계서, p. 9

19) 이지연, 전계서. p. 7

20) 오승민 전계서, p. 10

그리고 어린이에게 독보를 지도할 때, 언어 습득과정에서 어린이가 말을 먼저 한 후에 일기 쓰기를 하듯이 바이올린을 배울 때에도 음악적 감각, 연주기술, 기억력이 어느 정도 육성된 다음 독보지도에 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²¹⁾

그러므로 스즈키 교본 1권부터 3권까지는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레코드를 듣고 외워서 연습하고 스즈키 교본 4권부터는 독보가 시작된다. 그러나 3세 또는 4세의 유아가 아닌 좀더 나이가 든 어린이는 독보지도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4) 부모(어머니)의 조력

스즈키는 “어린이의 가능성은 그들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흡수된다.”고 말하면서 좋은 환경을 강조했다. 어린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높은 표준을 가질 수 있고, 탁월한 능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머니이다. 그것은 주 1회의 지도만으로 어린이의 능력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정에서 협력과 지도 아래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라도록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즈키의 재능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곧 교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에 관하여 엘리자베스 밀(Elizabeth Mills)은 14개의 항목으로 요약하고 있다.

- ① 자녀의 수업에 참가하여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모든 내용을 관찰하고 의문점을 수업시간이 끝난 후 토의한다.
- ② 수업내용의 기억을 돕기 위해 곡을 녹음해 두었다가 수시로 어린이에게 들려준다.
- ③ 어머니 또는 가정에서 어린이와 함께 적어도 1권은 쉼 수 있도록 연습한다.
- ④ 레코드를 매일 들려준다.
- ⑤ 레코드에 맞추어 반복연습을 하도록 한다. 또한 진도에 급급해 하지 말고

21) 이지연, 전게서. p. 8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면서 청음능력을 향상시킨다.

- ⑥ 3세의 유아는 장난감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기를 장난감과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머니가 악기관리에 신경을 써서 연습하기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⑦ 자녀의 동기유발을 위해 음악회나 같은 나이 어린이들의 연주회를 자주 가 본다.
- ⑧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자녀와 다른 아이의 발전을 비교 하지 말고 발전된 배경을 알아본다.
- ⑨ 스즈키 교육법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이념으로 교육하는데 적용한다.
- ⑩ 꾸짖지 말고 격려한다. 사랑이 깊으면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
- ⑪ 음악은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적다. 어른스러운 음악적 환경을 조성하여 음악적 성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⑫ 어린이가 연습하는 것은 항상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하루 한 번 연습보다 2 회 이상의 연습이 효과적이다.
- ⑬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어린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연습하도록 이끈다.
- ⑭ 어머니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지도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한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교사이다. 어머니의 적극적이 도움으로 모국어를 배우 듯 재능교육을 실천해야 하며 교사는 어머니가 바르게 교육하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도를 해야 한다.²²⁾

(5) 그룹레슨(Group Lesson)

지금까지 언급했던 학생들의 교육환경, 지도원리와 더불어 스즈키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 그룹레슨의 유용성이다. 주 1회 이상이나 매월 2번 이상의 그룹지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 때 진도가 많이 나간 상급반과 초급반 어린이들

22) 오승민 전계서, pp. 11 ~12

이 모여서 함께 연주하도록 하였다. 높은 수준의 곡을 연주하는 동안 초급반은 연주를 경청하고 자세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이 시간에 어린이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보다 나은 점을 민감하고도 즐겁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룹레슨의 교육적인 효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급반은 상급반의 연주를 듣고 커다란 자극을 받아 강한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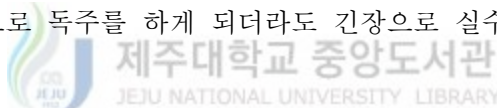
둘째,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수준의 곡을 연주하고자 하는 성취동기가 생긴다.

셋째, 아직 경험하지 않은 곡을 미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넷째, 상급반 학생들로부터 음악적 영향을 받는다. 즉 활쓰기(Bowing), 비브라토(Vibrato), 음악적 표현 등 기술에 영향을 받게 되고 모방하려고 한다.

다섯째, 부모를 비롯한 여러 사람 앞에서의 연주를 하게 되므로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독주를 하게 되더라도 긴장으로 실수하는 경우를 적게 한다.



그룹의 동료의식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과 경쟁심, 협동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다른 사람의 노력을 존중해주며 긍정적이고 사려 깊은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이것은 나아가 그룹레슨을 적용했을 때 교사와 학생간의 다각적인 상호작용으로 학습활동의 활력소가 된다.

(6) 아름다운 소리내기(Tonalization)

성악에서 목소리를 아름답게 길러 주기 위해서 발성법을 배우듯이 바이올린에서도 아름다운 음을 내기 위한 ‘아름다운 소리내기’학습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지도를 받을 때나 가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하도록 한다. 그리고 스즈키는 어린이가 바이올린 음 하나 하나를 아름답게 내기 위한 학습과제를 꾸준히 연습할 경우, 어린이는 이러한 연습을 통해 음색과 동작 그리고

음악성을 훌륭하게 계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²³⁾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스즈키 교육의 지도 원리에는 빈곤의 원리, 음악적 감각의 육성을 위한 듣기 훈련, 암기식 교수법과 독보의 지도, 부모의 조력, 그룹 레슨, 아름다운 소리내기 등이다 이는 개인레슨이나 스즈키 학원에서 교육할 때에는 가능하지만, 초등학교 첼로 특기 적성을 통해 첼로를 배우게 되었을 때는 몇 가지 적용되지 않는 원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빈곤의 원리’같은 경우 악기의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다든지, TV나 연주회에서 연주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날 수도 있으나, 스즈키 교육의 지도 원리에서 말하는 빈곤의 원리(어머니가 먼저 악기를 배워 어린이에게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도록 함)가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조력’같은 경우 학교에서 첼로 수업을 할 때마다 어머니들이 와서 수업에 참관하기 어려우므로 엘리자베스 밀이 말한 14개 항목의 어머니의 역할이 다 적용 응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레코드를 매일 들려준다든지, 레코드에 맞추어 반복연습을 한다든지, 자녀의 동기유발을 위해 음악회나 같은 나이 어린이들의 연주회를 자주 가본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다른 아이와의 발전을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그 발전 배경을 알아보고 자녀가 더욱 음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첼로 특기 · 적성교육에 스즈키 교육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유용한 것 중 하나는 ‘그룹레슨’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으로 레슨을 할 경우는 합주할 기회가 드물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주 2-3회 정도 같은 날 레슨을 하기 때문에 동급생 또는 상 하급생과 함께 합주 또는 앙상블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레슨 받을 때 보다 더욱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할 수 있다.

23) 이지연, 전게서. p.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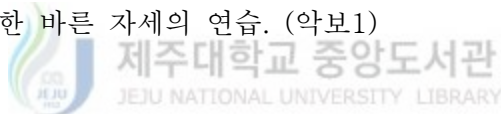
3. 실제적 지도 방안연구

1) 스즈키 첼로교본 제 1권 분석 및 지도방법

다음 본문에서는 스즈키의 첼로 교본 제1권을 토대로 수록된 곡의 특징과 지도방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체 곡은 총 17곡으로 스즈키가 작곡하거나 편곡한 6곡과 여러 나라의 민요 6곡, 바흐(J. S. Bach)의 미뉴에트 2곡, 베일리(T. H. Bayly), 퍼셀(H. Purcell), 슈만(R. Schmann)의 1곡씩을 편집하여 구성하고 있다.

첫 곡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활쓰기 테크닉을 배우게 되는데 이 때 사용하는 현은 D현이다.

(1) D현을 사용한 바른 자세의 연습. (악보1)



라장조의 4/4박자의 곡으로 활쓰기에 대한 학습이다.

D현은 활쓰기에서 팔의 각도가 가장 편안한 상태의 현으로 초보자에게 4현 중에서 최초의 활쓰기를 학습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활의 위치는 활의 중간 아랫부분을 선택하여 바른 자세로 박자에 맞추어 활을 긋는다. 리듬이 초보자에게 다소 어려워 보이거나 운지(손가락 누르기)는 사용하지 않고 활쓰기에 대한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에 큰 무리는 없다. 또한 (악보1)의 주요리듬은 스즈키 Method에서 리듬의 특유의 구령(치키치키 타타, 자동차가 붐뽕)을 붙여 아동들에게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각 음에 ‘자동차가 붐뽕’이란 노랫말을 붙여주고 쉼표에서는 ‘쉬고 쉬고’를 말하면서 연습을 시킨 후 익숙해지면 쉼표 없이 바로 연결하는 학습을 말한다.

악보1.



(2) 현을 옮기기 연습과 손가락을 신속히 옮겨 놓는 방법 (악보2)

사용하는 현은 D, A현으로 위에서 학습된 활쓰기로 활을 쓰며 D현에서 A현으로 현을 옮긴다.

동시에 D현에서 1, 3, 4번 운지의 위치를 학습하게 되어 있다.

섬표의 부분에서 다음 마디에서 연주되는 현으로 이동하여 준비된 상태에서 활을 쓰도록 되어 있다.

악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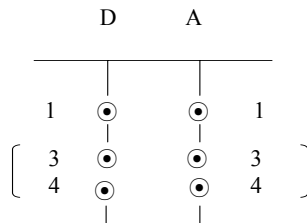


(3) 제 1포지션과 라장조 음계(악보3)

리듬은 J를 사용하여 한음씩 활을 현 위에서 멈추어 정확한 음 내기 연습을 한다. 다른 교재에서 제 1포지션에 대한 학습을 운지와 현이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에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스키에서는 제 1포지션의 A현과 D현에서의 1, 3, 4번 운지의 위치를 동시에 나온다.

앞에서 사용된 리듬보다는 느린 J를 사용하여 빠르기를 느리게 하여 운지의 위치를 정확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 왼손의 사용이 미숙한 초보자에게 왼손의 자세를 만드는데 있어서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때 주의 할 점은 3번 손가락을 짚을 때 1, 2번 손가락을 함께 짚어야 하며, 4번 손가락을 짚을 때는 1, 2, 3번 손가락도 함께 짚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행할 때 보다 하행할 때 더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4) 1번 《 작은별 변주곡 》(악보4)

이 곡은 원래 프랑스 민요를 스즈키가 변형시켜 어린이들이 쉽게 리듬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편곡한 변주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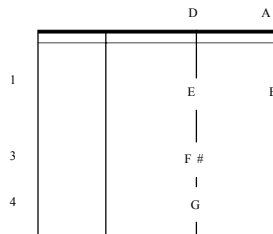
앞에서 4가지의 리듬유형으로 기본리듬을 미리 학습하였으므로 주제(Thema)를 중심으로 변형된 리듬을 연습하며, 리듬만 4가지의 유형으로 변형되므로 활쓰기 학습을 병용한 리듬 학습이다.

작은별 변주곡은 앞으로 학습 될 연습곡들의 기본이 되는 리듬이므로 리듬에 대한 감각을 철저히 연습한다.

사용되는 현은 첼로의 4현 중 A, D현을 사용하고 있다. 포지션은 제1포지션에서 D현의 1, 3,4번 운지와 A현의 1번 운지가 학습된다.(그림1)



그림1. 작은별 변주곡의 운지법



작은 별 변주곡을 지도할 때 먼저 노래를 불러보고, 악보에 나온 리듬을 손뼉과 무릎으로 리듬을 치면서 부르게 한 후 첼로로 쳐보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A악보 → 자동차가 붐뽕



처음 시작할 때 ‘자동차가 붐뽕’을 한번하고는 2박자의 휴식을 갖고 다시 ‘자동차가 붐뽕’을 한다. 2박자의 휴식을 갖는 이유는 줄을 옮기는 연습을 충분히 해준 후 연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휴식을 줄여 점차 곡을 연결시킨다.

리듬은 음을 짧게 끊어서 반 활만 사용하게 한다.

B악보 → 엄마-야 엄마-야



악보에서 처음으로 쉽표가 나오므로 아이들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 네 개의 변주곡 중 나머지 세 개의 변주곡을 익숙하게 학습시킨 후 가장 나중에 지도하는 것이 좋다. 반 활만 사용하여 끊어서 연습시킨다.

C악보 → 돌다리 돌다리



활길이를 일정하게, 모든 음을 끊어서 연습 시킨다.

D악보 → 자동차가 칙칙폭폭



가장 쉬운 듯 하면서도 아이들이 끝까지 일정한 리듬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곡이다. 박자를 천천히 시작해서 아이가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빠르게 지도한다.

그러므로 작은별 변주곡은 변주A - 변주C - 변주D - 변주B - Thema순으로 연습시키는 것이 좋다. 마지막 원곡은 반활 이상을 사용해서 marcato로 연습한다. 특히, 올림활의 소리가 내림활의 소리에 비해 작아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5) 2번 《 프랑스 민요 》(악보5)

조성은 라장조 3/4박자의 곡으로 A현의 3, 4번은 운지(C#, D)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학습된 D장조의 음계 안에서 3박나 유형의 학습을 하는 3박자의 강약법과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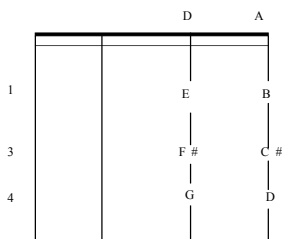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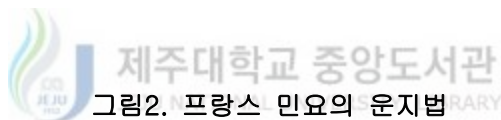
활 쓰기의 연습곡이다.

사용되는 현은 A, D현이고 주요리듬은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 \downarrow \sim$ 이고 포지션은 A, D선에서 1, 3, 4번 운지를 학습하게 되어 있다.(그림2)

활의 주법은 온 활을 사용하여 레가토(*Legato*)로 소리의 풍부함과 아름다움을 연주하고 활의 어느 부분에서나 고른음을 내기 위해 힘을 균형 있게 유지한다.

특히 셈여림표인 *mf* (조금 세게)를 표시해 놓아 악상을 익히게 한다.

악보5.



(6) 3번 《 나비야 》

이 곡은 프랑스 민요에서 익힌 온 활 쓰기 연습의 연장 학습이다. (그림3)의 포지션에서 연주되며 D현에서 1, 3, 4번의 운지로 구성 되어 있어 D현에서만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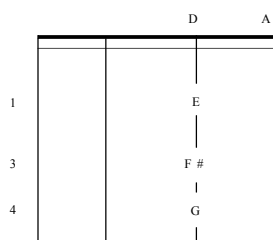
지가 사용되고 곡이 단순하여 D현에서의 1, 3, 4번 연습을 강화시키는 운지 학습 곡이다.

D현에서 3번 운지로 음을 누른 상태에서 A현의 다른 음을 연주하는 주법이 처음으로 나온다.(악보6)

이 경우에 줄을 누르고 있는 손가락이나 다른 왼손의 부분이 A현의 연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박자가 2/2박으로 바르기 때문에 활이 현에서 이동할 때 정확하고 맑은 소리로 연주한다.

악보6.

그림3. 나비아의 운지법



(7) 4번 《예쁜 새》

2/4박자의 곡으로 3박자 학습에 이어 2박자의 강약 법을 연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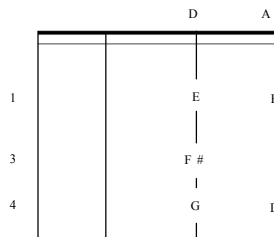
A, D현의 활 기울기연습과 활 바꾸기, 4번 운지의 강화 연습곡이다. 활 기울기연습은 2개 이상의 현에서 활리 이동할 때 각 현에 따라 활의 각도가 다르므로 이 각도(기울기)를 잘 적응해서 잡음이 들리지 않고 좋은 음을 내는 연습곡이다.

또한 (악보7)의 4분 쉼표는 활을 바꾸기 위한 예비 박으로 사용하고 A현의 1번 운지를 누른 상태로 D현의 4번 운지와 A현의 4번 운지를 눌러야 하는 연습곡이다.(악보7)

이러한 연습은 4번 운지의 힘을 길러주고 제 1포지션의 1번과 4번 운지의 간격을 익힌다. (그림4)의 포지션에서 연주된다.



그림4. 예쁜 새의 운지법



(8) 5번 《주먹 쥐고 손뼉치고》

포지션은 다시(그림1로)로 돌아와(그림1) 포지션의 반복 또는 강화학습의 효과를 주는 연습곡이다.

주요 리듬은 ♩ ♪ ♩ ♩/ ♩ ♩ ♩ ♩ 이어 리듬길이에 따른 운궁법 학습으로 다음과 같은 제시가 필요하다. 리듬별로 부분 활을 써야하는 운궁법으로 리듬에 부분 활에 대한 지시 즉 ♩(온 활) ♪(반 활)의 표기가 필요하다.(악보8)

악보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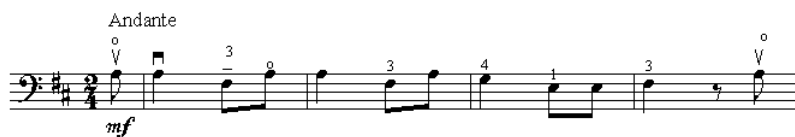


(9) 6번 《크리스마스의 노래》

(그림4)의 포지션에서 연주되고 못 갖춘마디로 곡이 시작되어 엇 박에서의 활 쓰기 연습곡이다. 못 갖춘마디의 리듬이 ♩이기 때문에 올림 활(∨)로 시작하여 (악보9)의 4번째 마디의 경우 올림 활이 두 번째 걸쳐 연이어 사용되므로 이 마디에서 활을 아껴 쓴다.(악보9)

특히 썸여림 표 등 다양한 악상기호가 많이 나와 연주의 음악적 표현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곡이다.

악보9.



(10) 《토널리제이션》

포지션은 (그림2) 와 같으며 피치카토로 현을 통기어 음을 들려주고 음이 사라질 때 까지 울림을 잘 듣게 하고 같은 음을 활로 연주하게 한다.(악보10)

개방 현에 대한 토널리제이션으로 활의 사용하는 전체부분에 힘의 크기가 같게 작용되어 맑은 음을 내게 하고 활이 현을 바꿀 때 활 기울기에도 주의하여 연주하는 현의 정확한 음을 만든다.

악상기호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짧은 연주로 썸머립에 대한 학습을 같이 하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된다.

악보10.



(11) 7번 《봄바람》

(그림4)와 같은 포지션 안에서 연주하고 주요리듬은 ♩ ♩ ♩ / ♩ ♩ ♩ 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되는 현은 A, D이고 첫째마디의 주요 리듬의 활 쓰기 학습이 필요하다.

♩와 ♩의 리듬 길이의 활 쓰기 비율은3(♩) :1(♩)로 점음표에서 활을 느린 속도로 조금 사용하고 8분 음표의 올림 활 연주에서 손목에 힘을 빼고 빠르게 동작한다. 이 때 올림 활의 연주가 강하게 들리지 않도록 한다.

악보11.

Allegro Moderato

0 3 4 1 4 1 0 4 0 3 0 1 0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2) 8번 《 알레그로 》

포지션은 (그림2) 와 같고 리듬보다 활 주법에 대한 학습을 중점으로 하는 연습곡이다. 특히 이 연습곡은 활 주법의 확대를 가져온다.(악보12)

♩의 경우는 테누토 스타카토 주법으로 음을 짧게 끊는 주법이면서 그 음을 충분히 연주한다.

현악기의 활 주법은 매우 다양하고 주법 경우에 따라 아동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은 주법과 용어들이 많다.

이 연습곡에서도 활의 주법이 중심이 되어 학습되는데 곡의 표현에서 선택된 활 주법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필요하다.

악보12.



(13) 9번 《무궁동》

포지션은 (그림2)이며 A, D현의 활 기울기 학습과 리듬에 대한 연습곡이다.

A, D 현에서 선율이 순차 진행과 도약 진행이 어우러지는 흥미로운 곡이며 두 가지의 리듬 형태로 변주하게 되어 있다.

라장조의 음계 안에서의 음렬을 익히고 지금까지 학습해온 포지션 안에서 나온 음의 자리를 다시 익히게 하는 총 정리 학습이다.

(14) 토널리제이션과 《 무궁동 사장조 》

C, G, D, A현의 온 활 쓰기로 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토널리제이션이 나오고 (악보13)을 참조하면 처음으로 C현의 D음과 G현의 A, B, C음이 나온다.

토널리제이션은 좋은 소리를 내는 연습으로 이는 활 뿐 만 아니라 운지에도 큰 영향을 주므로 현을 누르는 운지의 힘과 자세에 대한 연습도 함께 적용한다. C, G현으로 포지션이 확장되면서 사장조 음계를 학습하게 된다.(그림5)

사장조의 음계의 응용학습인 《 사장조 무궁동 》 D, G현의 활 기울기 연습곡으로, 앞서 9번에서 학습한 라장조 무궁동과 같은 멜로디를 아동들에게 곡에 대한 지루함을 줄 수 있다. 같은 학습효과를 주는 다른 곡으로 바꾸어 아동들에게 새로운 연습곡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악보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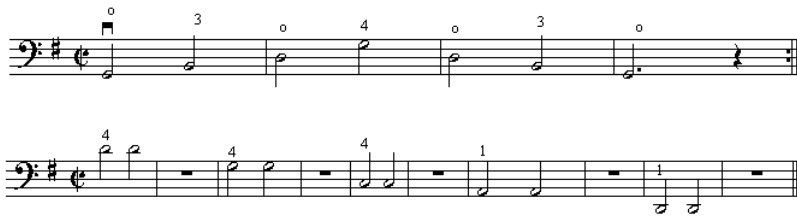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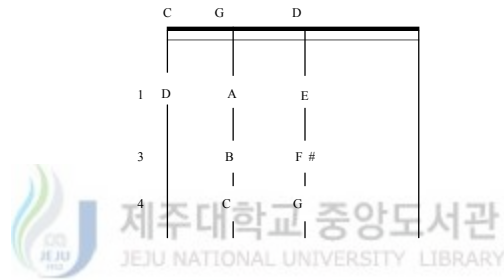


그림5. 무궁동 사장조의 운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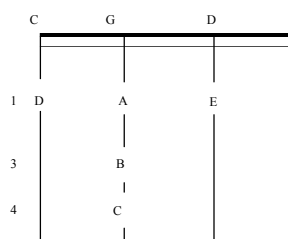
(15) 10번 《 그 옛날에 》

(그림6)의 포지션에서 연주되고 조성은 사장조로 사장조음계의 응용 곡이며 리듬 길이에 따른 활 쓰기 연습곡이다.

사용되는 현은 D, G, C현이고 주요 리듬은 ♩ ♩ ♩ / ♩ ♩ ♩이다.

앞서 학습한 주먹 쥐고 손뼉 치고 리듬과 같이 ♩, ♩의 리듬을 연주 할 때 부분 활과 전체 활로 연주한다.

그림6. 그 옛날에의 운지법



(16) 11번 《알레그레토(노래는 즐겁다)》 12번 《즐거운 아침》

(그림7)의 포지션 안에서 연주되고 활 주법에 대한 연습곡이다.

(악보14)를 참조하면 짧게 끊어 연주하는 스타카토와 Detache(데타취 - 하나의 음표를 같은 압력으로 균일하게 연주하는 운궁법)의 활 주법이 사용된다.



악보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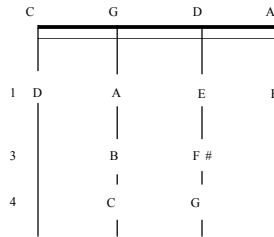
11번



12번



그림7. 노래는 즐겁다와 즐거운 아침의 운지법



(17) 《둘째 손가락 연습》, 13번 《 리고동(Rigaud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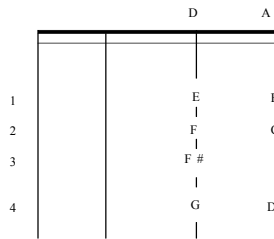
2번 운지에 대한 연습곡으로 둘째 손가락의 연습은 앞에서 학습한 1번 운지와 3번 운지 위치의 사이에 있는 2번 운지의 자리 익힘에 대한 학습이다.

1, 2, 3번 운지의 간격을 정확한 음정의 위치에 맞추어 익히며, 운지 학습은 줄을 누르거나 운지를 뗄 때의 바른 자세 및 왼손자세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13번 《리고동》앞서 배운 2번 운지에 대한 연습곡이며 2번 운지가 나올 때마다 별도로 표시하여 2번 운지를 유도한다.

둘째 손가락 연습 그리고 《리고동》에서 연주되는 포지션은(그림8)이다.

그림8. 리고동의 운지법



(18) 《 토널리제이션 》 , 《 다장조 음계연습 》 , 14번 《 에튀드 》

토널리제이션과 다장조 음계연습은 2번 운지에 대한 연습으로 1포지션의 안에서 운지 간격과 위치에 대한 연습을 한다.

14번 에튀드(Etude)는 다장조 응용연습곡으로 포지션은 (그림9)에서 4현을 모두 사용하고 선율은 3도에서 8도까지 진행되는 순차진행과 도약진행을 하고 D, G현의 활 기울기 연습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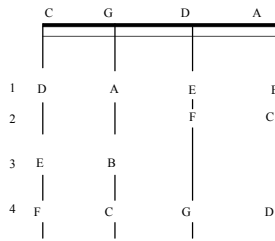
4현의 1, 2 3, 4번의 운지를 모두 사용하게 되어 있어 여기까지 첼로의 도입 단계인 제1포지션을 학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스즈키 제 1권의 연습곡에서 연주에 사용되는 현의 비율을 보면 C, G현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

특히 첼로에서 G현과 C현은 현이 굵어서 일반적으로 아동들이 누르기 힘들어 하는 편이다.

C, G현의 부분적인 연습곡을 많이 수록하여 운지의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9. 에튀드의 운지법



(19) 15번 《 즐거운 농부 》, 16번 《 미뉴에트 다장조 》

즐거운 농부와 미뉴에트는 2음의 이음줄(Slur) 활 쓰기 연습곡으로 2개의 높이가 다른 음을 한 활로 연주한다. 베르너나 스트링 빌더의 단순박자(J, ♩)부터 이음줄 학습 시작하는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은 점음표와 8분 음표의 이음줄을 학습하게 하였다.

즐거운 농부는 (그림10)과 미뉴에트는(그림11)의 포지션에서 연주 되며 다양한 활 주법과 리듬이 전개되어 많은 발전을 주는 연습곡이다.

그림10. 즐거운 농부의 운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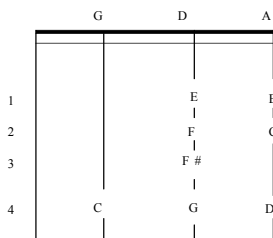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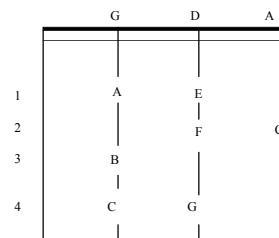


그림11. 미뉴에트 다장조의 운지법



(20) 17번 《미뉴에트 No.2 》

미뉴에트(악보15, 그림12참조) 는 D현에서 G#음이 도입되면서 13개의 음들로 이루어져 있고 A, D, G 현의 활 기울기 학습과 임시표(#)에 의한 운지의 확장과 3음의 이음줄 연습곡이다.

D현의 G#음은 확장된 포지션으로 1포지션에서 포지션이 발전됨을 의미한다. 이는 1번 운지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2번 운지의 음정을 반음 올려서 확장하고 3, 4번 운지도 반음씩 올려 위치한다. 이 때 엄지의 위치도 반음정도 위(브릿지 방향)로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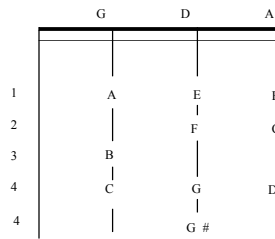
활의 기울기도 A에서 G현으로 건너뛰는 기울기로 신속히 동작하고 ♩의 3음을 한 활로 부드럽게 연주한다. 여기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포지션에 치중하는 학습보다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연습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악보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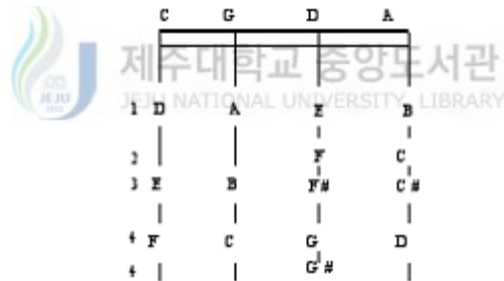


그림12. 미뉴에트 No.2의 운지법



스즈키 제1권에서 나온 포지션은(그림13) 과 같다.

그림13. 스즈키 제 1권에서 포지션



2) 효율적인 특기적성교육 지도방안

(1) 스즈키 첼로 교본을 활용한다.

앞에서 살펴본 스즈키 첼로 교본을 가지고 스즈키 교육방법에 근거하여 지도한다.

(2) 베르너 첼로 교본이나 스트링 빌더 같은 연습 교재를 병용한다.

스즈키 첼로 교본은 D장조로 시작이 된다. 음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이해가 부족한 학생일 경우 처음 보는 악보를 연주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에 베르너나 스트링 빌더 같은 교재를 병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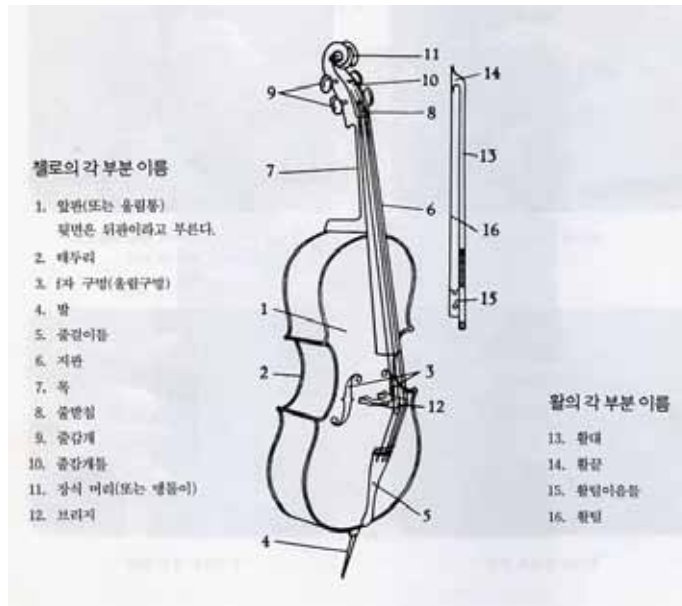
맨 먼저 첼로 악기와 활의 각부분 명칭과 첼로의 앉는 자세 익히기, 활 잡는 법 익히기, 첼로를 배우는데 필요한 기초 악전과 기호를 설명한 다음 활 사용법(bowing)을 가르친다.

《지도내용1》 첼로와 활의 구조와 명칭

- 첼로와 활의 구조와 명칭에 대해 알아본다.



그림14. 첼로와 활의 구조와 명칭



《지도 방법1》

- 사진이나 그림, 실제 악기를 통해 확실하게 익힌다.
- 스스로 모양에 따른 쓰임새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 주법에 따라 다양한 음질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지도 내용2》

※ 첼로의 앉는 자세 익히기

- 첼로의 기본자세는 먼저 의자에 앉는 자세로 적당한 의자의 높이는 학생이 앉았을 때 무릎이 수평을 이루는 정도의 높이가 좋고 다리가 바닥에 닿아서 약간 벌려서 앉는다.

악기의 몸통이 무릎사이에 오도록 핀의 길이를 조절하며, 이때 왼쪽 무릎안쪽 부분에 악기의 왼쪽 아래에 있는 모서리 부분이 닿도록 하며 오른쪽 모서리 부분은 오른쪽 무릎과 종아리에 오도록 한다. 첼로 지판 목 부분의 오른쪽 어깨에서 2인치 정도 떨어지도록 한다. 이때 머리가 줄 길이 상자에 닿지 않도록 묶어준다.

《지도 방법2》

- 교사가 자세를 직접 보여주고 학생들이 같은 모양으로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학생이 자세를 취하게 하고 틀린 것은 지적해주고 교정하여 준다.

그림15. 첼로의 앉은 자세



《지도 내용3》

※ 활 잡는 법 익히기

- 활을 잡는 법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란을 잡은 듯이 원모양의 형태로 잡는다. 손의 긴장을 풀고 어깨에서부터 팔의 모든 힘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손목만을 가만히 올려놓고 활을 쥘다.
- 손목의 힘을 뺀 상태에서 손가락 끝이 바닥을 향하도록 정면을 향해 팔을 들어 올리면 손가락 사이의 간격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엄지는 중지와 마주 보고 놓이게 되면 왼손으로 활의 중심부분을 잡고 활의 아래쪽 부분을 엄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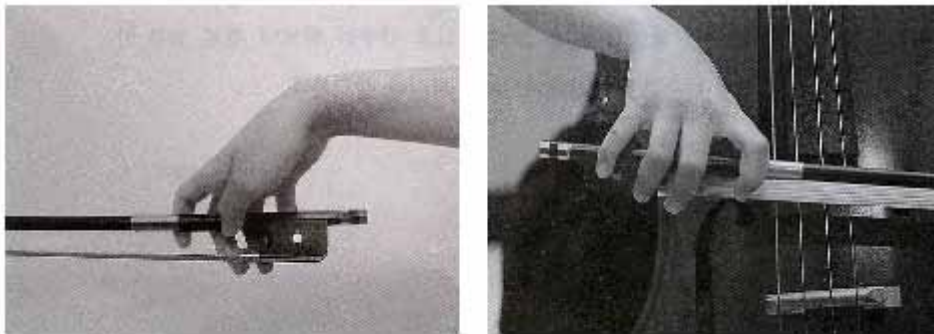
나머지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엄지의 안쪽 끝부분이 활대와 활의 아래쪽이 만나는 지점에 닿도록 하고 검지의 두 번째 마디 바깥부분은 활대에 기대서 놓는다.

중지의 반은 금속부분에 반은 활 텅 부분에 닿도록 해주고 소지는 활의 아래쪽에 잇는 원에 놓이게 하고 약지는 중지와 소지 중간 지점에 오도록 한다. 이때 중지, 약지 그리고 소지의 관절 부분이 활대에 닿지 않도록 해 준다.

《지도 방법3》

- 활 잡는 방법은 첼로 연주에서 굉장히 중요하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 나무젓가락이나 연필, 수수깡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번 반복 연습을 실시한다.

 그림 16. 활 잡는 모양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도 내용4》

※ 활 사용 기호 익히기

\cap 또는 \wedge = 내림 활

\vee = 올림 활

H = 활밑으로(활털 이음틀 부위)

P = 활 끝으로

M = 가운활

L.H. = 밑반활

U.H = 위반활

《지도 방법4》

- 사진이나, 그림 교사의 시범을 통해 설명을 듣는다.
- 활 켜는 방법에 따라 음색이 달라짐으로 연주를 통해 이해하고 익힌다.



《지도 내용5》

※ 활 쓰기

· 학생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활을 지판의 끝부분과 브릿지의 중간 지점에 붙인 채로 브릿지와 평행 상태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활이 브릿지와 평행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는 양팔의 팔꿈치와 손목이 완전히 펴진 상태로 활의 포인트 지점을 가운데 두 현위에 올려놓고 오른쪽 손목의 안쪽 부분이 왼손에 닿을 때까지 활 대를 따라 미는 듯이 이동 시킨다.

· 올바른 팔 동작은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의 활에서부터 활 끝까지 활대를 잡은 듯이 어루만지며 오른손 팔을 움직인다. 팔 전체에 무게를 떨어트려 힘을 뺀 상태에 자연스런 활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이 연습을 많이 함으로 자연스런 활의 움직임과 손 모양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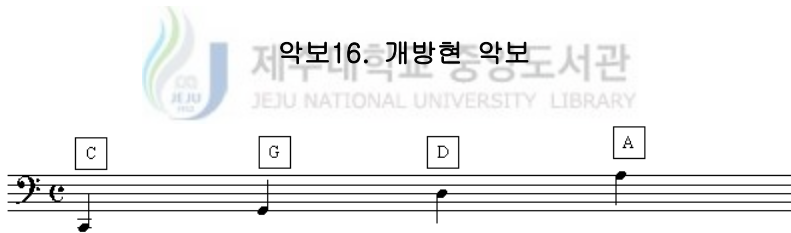
《지도 방법5》

- 활 쓰기에 실현을 위해 우선 활을 4등분하여 테이프를 붙여 각 지점에서 팔 움직임에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활 쓰기는 첼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학생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이다. 이 때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억압하여 첼로가 싫어지거나 배우는 것을 꺼려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어 수업시간이 재미있도록 한다.

《지도 내용6》

※ 1~4줄 개방현 익히기

- 1번선 A=라, 2번선 D 레, 3번선 G=솔, 4번선 C=도



《지도 방법6》

- 교사가 먼저 차례대로 개방현을 들려준다.
- 개방현을 학생들이 튕기면서 음을 익힌다.
- 활로 차례대로 한번 소리 내어 본다.
- 각 현을 온음표(。)에서 2분음표(♪), 4분음표(♩)순으로 연습한다.

악보17. 온음표 연습

1

악보18. 2분음표 연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악보19. 4분음표 연습

《지도 내용7》



※ 손목연습

- 팔에 힘을 뺀 상태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목을 서로 맞대어서 서로 밀어 어느 한쪽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거나 힘이 센 쪽이 튕겨 나갔을 때 그 힘으로 하면 된다.

악보20. 손목연습

《지도 방법7》

- 팔과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 교사가 항상 집중하여 손목연습에 대한 올바른 지적을 해준다.

《지도 내용8》

※ 왼손 손가락과 팔 자세 익히기

· 손가락의 자세는 엄지손가락과 다른 4개의 손가락의 위치로 손 전체를 첼로의 지판위에 평평하게 놓아보고 각 손가락들이 수직이 될 때까지 각 손가락들은 둥글게 구부려 두개의 접지와 첫 번째 접지를 탄으로 잡아당기는 듯이 한다. 손가락을 안으로 구부린다. 힘을 빼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엄지의 역할이 중요한데 엄지와 4개의 손가락 모양이 둥글게 원모양을 형성하고 셋째 손가락에 반대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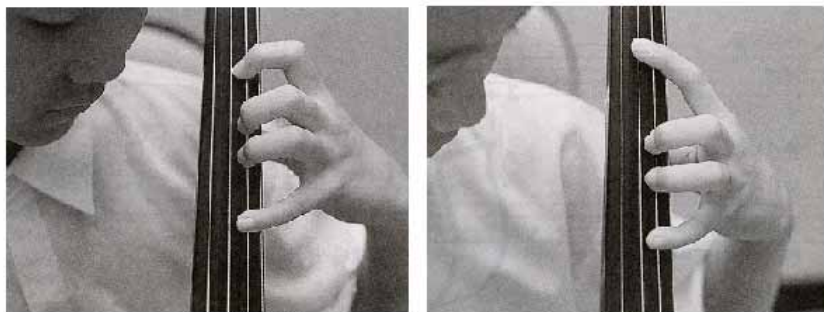
엄지손가락은 물건을 쥐듯이 하며 다른 손이 움직임이 원활하도록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 손등이 지판 보다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부드러워야 한다.
- 팔과 팔꿈치는 아래로 내려와 겨드랑이에 붙으면 포지션과 손가락이동에 불편함으로 주의 한다.

그림17. 왼쪽 팔 자세



그림18. 손가락 세운모양과 펼친 모양



《지도 방법7》

- 먼저 첼로 지판을 대신할 수 있는 도구(연필, 작은 막대기등)를 통해 손가락 연습을 한다.
- 활 쓰기와 마찬가지로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고른음을 내기 위해 바른 자세로 정확하고 같은 모양으로 연습하도록 지도 한다.

《지도내용8》

※ 손가락 누르는 법과 차례대로 음 짚기

- 손가락으로 현을 누를 때에는 손가락을 꾸부리고 손가락 끝으로 현을 강하게 때린다. 때릴 때의 힘만을 필요하고 누르고 난 후에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 손가락 번호 알기
 - 0 = 개방현
 - 1 = 집게 손가락
 - 2 = 가운데 손가락
 - 3 = 약손가락

4 = 새기손가락

○ = 엄지손가락

· 2번선(D현), 1번선(A현), 3번선(G현), 4번선(C현) 순으로 1번 손가락부터 음을 차례대로 연습한다.

악보21. 2번선(D현)연습곡

악보21. 2번선(D현)연습곡

악보22. 1번선(A현) 연습곡

악보22. 1번선(A현) 연습곡

악보23. 3번선(G현) 연습곡

0 1 3

G A C

6 4 3 1

12

악보24. 4번선(C현) 연습곡

0 1 2

C D C

6 4

F

12

C D C

《지도 내용9》

※ 제 1포지션 연습

- 활쓰기 손가락 짚기가 조금 자연스러워지면 제 1포지션의 다장조 음계를 지도한다.

· 음계 역시 온음표(♩ : 4박, 각활) → 2분음표(♪ : 2박, 2개음 연결) → 4분음표(♩ : 1박, 4개음 연결) 순으로 지도한다.

악보25. 다장조 음계 - 온음표

악보26. 다장조 음계 - 2분음표

악보27. 다장조 음계 - 4분음표



《지도 방법 9》

- 먼저 교사가 다장조 음계를 들려준다.
- 학생이 음정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천천히 연주하도록 한다.

다장조 음계를 외워서 자신 있게 켜게 되었을 때 스즈키 첼로 교본을 함께 병행하기 시작한다.



(3) 그룹 레슨(Group Lesson)

그룹레슨의 의미는 아이들로 하여금 또래의 그룹을 통해서 연주기술을 세련되게 해 주는 기회를 부여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과 연주에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음악의 즐거움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곡이 연주되는 것을 보고 들을 수도 있다. 악기를 실제로 켜기 시작하면서 이 때 교사가 말로만 수업을 하기보다 직접 첼로를 함께 켜면서 수업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켜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자세와 소리를 비교하여 모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악기를 켜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 있게 소리를 내게 된다. 교사는 학생이 틀리는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 시범을 보여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음감과 박자감, 리듬감을 기를 수 있다. 혼자 악기를 켜면 자신도 모르게 빨라지거나 느려

질 수 있는데, 선생님의 악기 연주 소리를 들으며 켜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감과 박자감, 리듬감이 생긴다.

그리고 한 학생씩 돌아가며 첼로를 켜 보거나, 짧은 곡을 연주하게 하고 그에 대해 고쳐야 할 부분을 다른 학생들이 지적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스즈키 교육방법에서는 주1회 내지 월 2회 정도 그룹레슨을 권하고 있다. 스즈키 1권의 ‘무궁동(9번곡)’을 잘 켜게 되면 합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높은 수준의 곡부터 낮은순으로 연주한다.

그러면 맨 마지막 곡이 ‘작은별 변주곡’이 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켤 수 있는 곡이 나오면 그때부터 연주한다. 자신이 아직 배우지 않은 곡은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고, 상급생의 연주를 보며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도전을 받게 된다.

(4) 앙상블 연주

첼로 특기. 적성교육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첼로와 피아노의 앙상블, 그리고 첼로로만 연주하는 첼로 앙상블이 있다. 스즈키 첼로 교본인 경우, 피아노와 앙상블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첼로를 멜로디로 켜고 선생님이 피아노로 반주를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의 수가 조금 많을 경우에도 전체를 리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피아노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는 장소적인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첼로 앙상블은 장소적인 제약이 거의 없다.

현재 스즈키 첼로 앙상블 악보가 우리나라에 출판된 것은 없고, 미국 SUZUKI METHOD INTERNATIONAL에서 1987년에 출판한 〈Ensemble For Cello (Volume 1)〉에는 Cello 2 또는 Cello 3 파트로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화성적 반주나 리듬적 반주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중 상급 수준의 학생들이 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포지션과 더블 스탱(double stops), 피치카토 코드(pizzicato chord), 테너 보표를 먼저 지도해 주어야 한다.

다음은 중 상급수준의 학생이 앙상블로 연주할 수 있는 몇 곡을 제시 하였다.

악보28. 작은 별 변주곡(양상블)

cello 2

Theme

5

9

cello 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

9

악보29. 나비아(양상블)

cello 2

Moderato

mf

6

12



악보30. 예쁜 새(양상블)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ello 2

Moderato

mf

6

12

악보31. 주먹 쥐고 손뼉치고(양상블)

cello 2

Moderato

mf f

6 p f

11

Detailed description: This is a musical score for cello 2, marked Moderato. It consists of three staves of music in the key of D major (two sharps) and 4/4 time. The first staff contains measures 1 through 5, starting with a mezzo-forte (mf) dynamic and ending with a forte (f) dynamic. The second staff contains measures 6 through 10, starting with a piano (p) dynamic and ending with a forte (f) dynamic. The third staff contains measures 11 through 11, ending with a double bar line.



악보32. 크리스마스 노래(양상블)

cello 2

Andante

mf

6

12 f

Detailed description: This is a musical score for cello 2, marked Andante. It consists of three staves of music in the key of D major (two sharps) and 3/4 time. The first staff contains measures 1 through 5, starting with a mezzo-forte (mf) dynamic and featuring a 'V' (accrescendo) marking. The second staff contains measures 6 through 11, also featuring a 'V' marking. The third staff contains measures 12 through 12, ending with a forte (f) dynamic and a double bar line.

악보33. 봄바람(양상블)

cello 2

Allegro Moderato

f *mf*

6 *p* *f*

11 *poco rit.* - 2nd volta



악보34. 알레그로(양상블)

cello 2

Allegro

f

6

dolce

11

rit. *f* *a tempo*

1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 연주기회 제공

좋은 교육 방법과 교재를 활용한 수업이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예술인 ‘음악’은 그 재능을 발휘할 무대는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에서 특기 적성교육으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면 교내학예경연대회를 열거나 최소 1년에 2~3번 정도의 연주할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물론 각 학교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자신감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조기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기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한 신이찌 스즈키(Shinichi Suzuki)의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초등학교 특기·적성에 필요한 스즈키 첼로 교본1권 중심으로 지도방안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첼로를 지도하는 하는 것은 이 교육제도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적성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제도 이고 학생들이 첼로라는 악기를 좀 더 쉽게 익히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과 초등학교 학생에 맞는 수업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첼로 교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학교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교재는 《스즈키 첼로 교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즈키 교육방법론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지도함으로 초등학교 첼로·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인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특기·적성 교육의 개념 필요성 기본 방향을 살펴보고 오늘날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 있어서의 기악반의 활동상태와 기악반에서의 첼로 특기·적성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스즈키 첼로 교본》의 저자이며 재능교육으로 유명한 신이찌 스즈키(Shinichi Suzuki)의 생애와 교육철학과 그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의 교육철학은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사상위에 인간의 능력은 후천적 교육과 환경에 따라 무한히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모국어 학습교육의 원리를 악기교육에 적용하여 재능교육을 전개해나갔다.

이러한 재능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이른 시기에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반복을 되풀이한다.

셋째, 교육적이고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넷째, 훌륭한 교육방법으로 가르친다.

다섯째, 뛰어난 지도자에게 배운다.

그리고 스즈키 지도 원리로는 빈곤의 원리, 음악적 감가의 육성을 위한 듣기 훈련, 암기식 교수법과 독보의 지도, 부모의 조력, 그룹레슨, 아름다운소리내기 ((Tonalization)등이 있다. 특기·적성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에 약간의 한계 점도 있으나, 그룹레슨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적인 지도를 위해서 스즈키 첼로 교본 제 1권을 분석하고 그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그리고 효율적인 초등학교 첼로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즈키 첼로 교본을 활용한다.

둘째, 베르너첼로교본이나 스트링 빌더등의 교재를 병용한다.

셋째, 그룹레슨을 활용한다.

넷째, 앙상블 연주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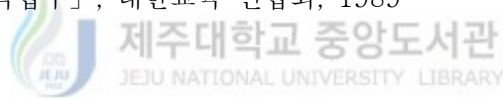
다섯째, 연주기회를 제공 한다.

본 연구를 마치며 앞으로 첼로를 활용한 특기·적성 교육이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첼로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들을 통한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져 초등학생 어린시기에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경험함으로써 창조적인 사고와 음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신장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

- 교육부, 「특기·적성 교과서 지도서」,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 교육부, 제 7차 교육 과정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8
- 장석민, “ 특기·적성 교육의 기본 개념과 방향 ” 「서울 교육」, 제 44권 제 3호 통권 168, 서울 : 서울특별시 교육과학 연구원 2002 가을호
- 이용일 「음악교육해설」, 서울 : 현대음악 출판사, 1998
- 유덕희 「예능교육」, 서울 : 한국방송 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성삼 「음악교수법」, 서울 : 세광출판사, 1987
- 새교실 8월호 「기악합주」, 대한교육 연합회, 1989



< 논 문 >

- 김선미, 「초등학교 특기·적성 첼로부를 위한 초급 교재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2001.
- 박지영, 「특기·적성 교육에 있어서 첼로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서은경, 「초등학교 첼로 특기·적성교육의 효율적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백갑점, 「초등 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 김동규, 「초등 학교 관악 합주단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이지연, 「어린이의 음악적 감각발달 단계에 따른 바이올린교육-스즈키방법

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김양희, 「스즈키 이론에 근거한 첼로 교수법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1999

황경익 「Suzuki Method에 관한 연구(바이올린을 통한 재능 교육)」, 대전, 한국 스즈키 음악협회, 1997

<악 보>

스즈키 첼로 교본 1,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7.

Rick Mooney, 「Ensemble For Cello (Volume 1)」 SUZUKI METHOD INTERNATIONAL(U.S.E.), 1987




< Abstract >

**Research on the Teaching of Cello: Elementary School's
Extra-Curriculum for Students' Aptitude
- With focus on Suzuki Cello Manual Vol. 1 -**

Han, Hye-Jung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Academic Adviser Chang, Hong-yong

We live in an ever-changing society. Significant changes are taking place in politics, economy, social issues, as well as culture. In light of this, the changes that we are now witnessing in the cultural arena have become evermore important. Likewise, people's interest in music is no exception.

Music education fosters the student's potential and creativity for music. As well, it promotes the student's ability to express emotion and ideas, as well as,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and taking on a holistic approach to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education. Thus, we ought to know how to enjoy music by way of comprehending the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intricacies of our society.

However, with the education leaning towards rote learning, proper education for music is being overshadowed. Fortunately, it is deemed possible to achieve the desired end of having to implement an education system that utilizes instrumental music, that it may foster education for children's special ability or talent and aptitude at elementary schools.

This research aims to bring about pedagogy based on Suzuki Cello Manual, the most widely used manual for cello instruction, and its 1st volume, in order to draw out a special methodology of teaching that focuses on fostering students' special ability or talent and aptitude.

Consequently, this research intends to shed some light on maximizing the efficiency of students' special talent and aptitude with regards to cello learning, while review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on developing the students' special talent and aptitude.

Firs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research, some basic notions and necessity on the education of developing students' special talent and aptitude have been scrutinized-as well as the reviewing of in which direction the former and the latter should head. In addition, with regards to the extra-curriculum on special talent or ability, the importance of instrumental music class and cello learning has been carefully reviewed. Furthermore, the life, teaching philosophy and pedagogy of Shinichi Suzuki, the author of “Suzuki Cello Manual”, have been examined. He states that children are themselves a separate entity deserving respect, and that the possibility of growth for human is infinite depending on the process of how one acquires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 thereof. The process by which a person acquires one's native tongue is applied towards instruction of musical instruments, and such is how education on developing a student's special talent or skill is carried out.

There are five rules to successfully achieving this.

First, one ought to start the education as early as possible.

Second, one ought to practise over and over.

Third, those supervising such a child or student ought to set up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acquisition of whatever is intended.

Fourth, a proper education methodology ought to be used.

Fifth, one ought to learn from a distinguished or talented instructor/teacher.

Also, Suzuki's theories on methodology includes the theory of need; listening practices to foster one's affinity with music; memorization or rote learning pedagogy, as well as the instruction on reading music; group lesson, and tonalization. The extra-curriculum on students' special skill/talent and aptitude may have its limit within the boundary of school environment. Suzuki methodology affords the students some chance to practise in groups.

For reason of practicality, Suzuki Cello Manual's volume one has been analyzed, and its pedagogy examined.

First, the use of Suzuki Cello Manual ought to be maximized.

Second, one ought to recommend group lessons.

Third, one ought to afford the chance for the students to engage in ensemble performances.

Fourth, one ought to provide the chance for the students to do or actively

participate in concerts.

With this, it is sincerely hoped that research on developing and fostering students' special skill or aptitude using cello be made persistent. Ultimately, all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serve, and should be given, the chance to get their hands on many other musical instruments, not just cello, that they may experience many different kinds of music and the sounds thereof. This ought to be done in earnest that the students may develop creative and sound mind and thinking which will enable them to be articulative. Any future research shall not deviate from what is hitherto mentioned.

